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박진경지음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박진경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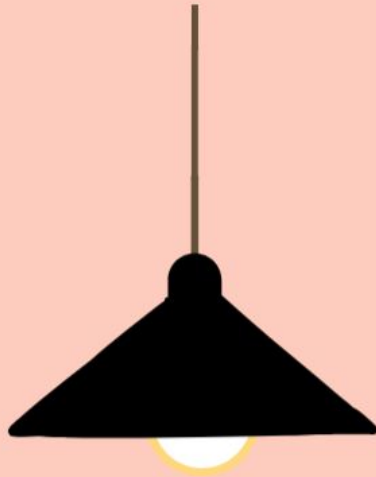
차례

인생을 동백꽃처럼

자서전 이야기

나의 빛났던 순간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



빛속의 방랑자

박진경 강사

비가 내리면, 손에는 노란 우산을 그리고 검은 레인코트에 하얀 하이힐을 신고 거리로 나선다. 명동에서 산 귀고리는 귀에서 반짝거리고, 진고개 끝, 세느강 레스토랑에서 상송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 창가 자리 꽃잎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 방울방울들.... 어느덧 나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 여행자가 된다. 지금도 들리는 빗물 소리, 하늘을 바라보며 터널 숲길을 걷는 여행자로 오늘도 방황하고 있다.

#비 #여행 #꽃 #숲길 #



박진경 <아름다운 동백꽃처럼>

인생을 동백꽃처럼

진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캔버스 위에 피어 있다. 피어날 때도, 질 때도 아름다운 이 꽃은 내 삶을 닮았다.

교통사고와 병마 속에서 팔십 해를 버텼지만,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글이라는 빛을 붙잡았다. 예순일곱 살, 「봉숭아 꽃물처럼」으로 JTI 新노년문학상 은상을 받으며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봉숭아 꽃물이 손끝에 번지듯, 내 아픔도 문장 속에 스며 하나의 흔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생이 마지막 순간에도 동백꽃처럼 맑고 단정하길 바란다. 떨어지는 순간조차도 고운 빛을 잃지 않는 동백처럼, 나 또한 삶의 끝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시련 속에서도 꽃은 다시 피어나듯, 나의 남은 날들도 그렇게 희망으로 물들 것이다. 동백은 나의 결심이자 기도이며, 여전히 내 앞을 밝히는 마지막 불빛이다.



박진경 <자서전이야기>

자서전 이야기

캔버스 위의 이번 그림은 나의 자서전을 노래한다. 활짝 펼친 책 위의 두 얼굴은 상처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내 영혼의 그림자다.

1966년 봄, 한순간의 사고로 젊은 날의 꿈은 부서졌지만, 봉선화 꽃물이 손끝에 번지듯 고통은 글 속에 스며들어 다시 삶을 피워냈다. 문장은 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고, 잎새와 꽃이 되어 세상과 다시 만났다. 노년문학상 수상과 자서전 출간은 절망 위에 세운 작은 등불, 그 불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림 속 햇살과 꽃들은 쓰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언어다.

여든하나의 오늘, 여전히 고통은 남아 있으나 내 마음 속에는 봄바람 같은 희망이 일렁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안의 꽃물은 여전히 번지고, 내일의 하늘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다. 나는 글로 길을 내며, 무너진 세월 위에 다시 빛나는 무늬를 새겨가고 있다

나의 빛났던 순간

관악산행 중에 친구를 사귀다.

사당에 살면서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관악산에 오르기 시작하다가 629m 높이에 있는 관음사까지 다니기 시작했다. 깎아지른 산 한 쪽 벽에 붙어있는 관음사를 보면서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기쁨에 차 있을 때 부부산악드레킹을 간다하여 용기를 얻었다.가

올라와서 한숨을 푹푹 들이쉬고 내쉴다. 머리가 허연 것을 보니 내 연배인 것 같아서 말을 텃다. 두 부부가 같이 돌레미터에 트레킹을 간단다. 남편이 심장수술을 했단다. 그의 느린 행동거지가 나와 비슷하여 용기를 내어 따라붙었다.

돌로미테를 시작으로 하여 스페인의 땅곳마을 까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길 및 제주도 올레길 까지 십여년간 병마와 싸우는 남편간호에 딸들이 보내주는 힐링의 시간들이었다. 한여름인데 폭설이 분분 하더니 12월 크리스마스가 대문을 활짝 열고 얼굴을 내민다. 손발이 금새 쫘쫘 얼어붙지만 마음만은 하늘의 영광을 한껏 받아들였다.

나는 산에 피는 꽃을 사랑한다, 그런데 높고 열악한 산등성이에 피는 꽃 산 위에 피는 꽃들을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

팔순을 넘어선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자주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이미 지나온 세월은 아득한 강물처럼 흘러 멀리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기억들이 있다. 기쁨과 아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내 삶을 빚어온 흔적들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문득 깨닫는다. 더 이상 뒤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이라는 제목을 마주하자, 오래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잊고 있던 희망이 다시 깨어났다. 팔순이라 하지만, 백세 시대라 하지 않는가. 이제 겨우 이정표 하나를 지난 것뿐이다. 사람의 인생은 바라보는 눈길 하나에도 달라진다. 같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은 절망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의 빛으로 물들 수도 있다.

나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라도 앞을 보며 새 길을 걸어가리라. 그 길의 첫걸음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이곳에 오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 나이에 새로운 공부 무슨 소용일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전혀 달랐다.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펼쳐졌고, 내 안에서 잠자던 호기심이 다시 눈을 떴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며, 노트북을 켜고 과제를 하며,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배우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몸소 깨닫는다.

오늘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전자책 만들기’ 수업에 가는 길, 나는 평소처럼 짐보따리를 끌고 들어섰다. 안내양이 나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옷차림이 참 화사하시네요. 분위기가 한결 환해졌어요.” 그 말이 내 귀에 칭찬처럼 들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내 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도와주려 했다. 던져버릴 듯 획 들어 올린 그 순간,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안 돼요! 내 노트북이에요. 흔들면 큰일 나요. 충격 주면 안 돼요.” 나는 두 손을 내저으며 다급히 외쳤다. 안내양은 순간 놀란 듯 멈추더니 금세 얼굴을 붉히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고 연신 사과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게 다시 건네주었다. 나는 노트북을 꼭 끌어안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품듯이.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연세에 왜 그런 걸 끌고 다니세요. 힘드실 텐데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히 말했다. “제가 다쳐서 물건을 제대로 들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지니고 다녀야 해요.”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앞으로 내가 해나갈 일들은 종종 남들의 눈에 낯설고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이와 환경을 핑계 삼아 ‘그만하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채우고 싶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다. 글을 쓰고, 전자책을

만들고, 세상과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할머니가 노트북을 끌고 다니며 전자책을 만든다고 하면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모습이 자랑스럽다. 팔순의 내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고, 배움을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나는 더 자주 웃으려 한다. 서툴러도 괜찮고,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다만 내 마음속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 더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팔순의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다시 시작한다.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은 여전히 배우고, 쓰고, 웃으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다. 남은 시간 속에서 나는 희망을 꽃피울 것이다. 아직 쓰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다.

천 갈래의 눈물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들의 유치원 졸업식에도,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성적도 알지 못한 채 이 대학 저 대학에 입학원서를 낼 때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없었다. 오직 내 건강을 위하여 성지순례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몸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다.

2012년 척추협착증 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았고, 2014년에는 심장 수술, 2015년에는 뇌경색 진단까지 받았다. 언어 소통조차 힘들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는 원주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왔다. 큰딸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십 분 거리의 아파트 단지에 우리를 살게 해주었다. 2020년 여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머리가 깨지고 허리와 다리를 다쳤다. 재활치료를 이어가던 중, 2022년 가을 새벽 두 시,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 갔다. 큰딸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며칠 만에 교대하며 마주한 남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우람하던 체격은 뼈에 가죽만 남은 듯 쪼그라들었고, 십 년 넘게 버티던 힘마저 사라진 듯했다. 눈물이 솟구쳐 도무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절망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 이듬해, 남편을 돌보던 내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 게다가 군에 있는 손자를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더

욱 놀라워했다. 이모인 큰딸이 야맹증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퇴근 후 차를 몰아 속초 호텔에서 우리를 재우고, 이튿날 아침 금강산 건봉사 근처 부대에서 손자를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고 비비며 웃자, 남편의 얼굴에 홍조가 돌고 주름이 퍼졌다. 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아무 불평 없이 행복해했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입을 모아 큰딸을 효녀라 칭찬했다. 나는 늘 의아하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내가, 노년에는 이렇게 딸들의 보살핌을 받다니. 큰딸은 모든 일을 지휘하며 주말을 책임지고, 작은딸은 먹거리와 옷, 화장품까지 챙기며 평일을 살뜰히 돌본다. 그런데 내 귀에 오래 남는 말이 있다. “진경이가 임신을 했대, 임신을…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버지는 유능한 한의사였다. 자손이 없어 애태우던 의사들조차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얻곤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삼남 일녀를 두었기에, 더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아버지께 단산을 청하셨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우리는 6·25 전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때 나는 자주 코피를 흘렸고, 피를 토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약과 침, 뜸으로 치료해주셨고, 코피는 멎었으나 치료는 계속되었다. 긴 치료에 지쳐 내가 거부하자,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 전쟁 중에 외삼촌의 성씨로 학적에 오른 나를 법원에서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주셨다. 잃었던

원뿌리를 되찾아 주신 것이다.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결국 나에게도 딸 둘을 점지해 주셨다.

나는 역류성 무월경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다. 그런데도 아이를 품고 있는 지금의 나는 아버지의 기도와 보살핌 덕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아버지는 내가 잠든 사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쑤하곤 했다. “이렇게 예쁜데...” 그 사랑을 나는 이제야, 죽어도 아깝지 않을 나이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해초는 천 갈래의 눈물을 흘린다지만, 나는 몇 천만 갈래의 눈물을 흘려야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엄마꽃, 영원의 증언

세 살 무렵, 나는 황해도의 과수원을 떠나 서울로 내려왔다.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던 시절,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부르주아’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서울에 정착하기도 전에 6.25가 터졌다. 다시 피난길에 올라 부산으로 향해야 했다.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피난길은 길고도 참혹한 비극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아이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내 또래와 내 동생 인수까지.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때 나를 감싸 안아 끝까지 지켜준 이는 외삼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씨로 나를 서울피난국민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전쟁의 공포로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외삼촌과 양모의 품은 어린 내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성채였다. 그러나 안전한 성채마저 오래 가지 못했다. 열두 살이 되던 해, 나는 생모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다. 양모와 헤어져야 했던 그 순간의 충격은 어린 가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밥 한 숟가락조차 삼키지 못했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말라갔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던 생모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학에 들어가면, 만나게 해주마.”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어둠을 찢고 들어온 한 줄기 불빛이었다.

기다림은 곧 희망이 되었고, 그 희망은 내 삶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되었다. 스무 살, 대학에 갓 입학하자마자 나는 곧장 청량리 시장으로 달려갔다. 팔 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은 낯설고

어지러웠다. 하지만 내게 분명한 것은 나는 ‘정자’였고, 엄마 또한 ‘정자엄마’라는 것, 그리고 엄마는 고추를 팔았다는 기억뿐. 시장의 고추 도매상을 찾아 헤매던 끝에, 여전히 ‘정자엄마’로 불리는 엄마를 발견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엄마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예쁜 새끼,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날 엄마는 또 다른 ‘정자’를 불러냈다. 내가 사라진 뒤 엄마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엄마 곁을 지켜준 아이. 본명은 희엽이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정자라 불렀다. 나 대신 불러낸 이름, 나대신 붙잡은 희망. 그렇게 두 명의 정자가 엄마의 한 품에 마주 섰다.

그러나 우리 모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다른 정자의 전화 한통. 엄마가 위암 말기로 순천의 양로원에 누워 있다는 비보였다. 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순천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서 막내 이모는 엄마의 지난 삶을 들려주었다.

“언니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었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화냥년’이라는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만주로 도망쳤지. 정신대에서 불리던 이름조차 버리고 내 이름으로 숨어 살았어.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이혼을 당했고, 너마저 품에 안을 수 없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이 뒤엉켜,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2014년, 안성 소녀상 봉헌식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직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곧 엄마의

목소리였다. 해방의 햇살은 온 땅에 퍼졌으나,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엄마 또한 그 굴레 속에서 한 생을 버텨내야 했다.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엄마를, 그리고 수많은 ‘정자엄마’들을 기억 속에서라도 해방시키겠다고. 엄마꽃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짓밟힌 삶 속에서도 끝내 피어난 사랑의 향기는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역사를 증언하게 한다. 엄마의 삶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가 짊어진 상처였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사랑을 놓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이름 모를 여인이라 불렀으나, 내게 그는 꺾이지 않는 꽃, 영원의 증언이다.

차례

인생을 동백꽃처럼

자서전 이야기

나의 빛났던 순간

앞으로 기대하는 내 모습